

## 고 리을설원수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을설 조선인민군 원수의 장의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였다.

고인의 령구가 안치된 중앙로동자회관에는 조기가 드리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령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령구발인에 앞서 고 리을설 원수를 추모하여 령전에 묵상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고 리을설 원수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고인의 유가족들과 함께 리을설 원수의 령구를 앞세우고 나오시였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의장대가 《령구에 들어 총!》을 하였다.

고인의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도착하였다.



향하여 떠났다.

령구차가 지나가는 평양의 거리들에는 리을설 원수와 영결하기 위하여 모여온 수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귀중한 로혁명가인 리을설 원수와 영결하는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었다.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도착하였다.

고 리을설 원수의 반신상이 세워져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의장대가 정렬해있었다.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

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차수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그렇게도 념원하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결을 떠난 리을설 원수에 대한 북받치는 애도의 정을 안으시고 군대의 책임일군들,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유해에 흠을 없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리을설 원수의 반신상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혈의 충정을 다하여온 고 리을설 원수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본사기자



# 인민이 안기는 자애로운 어버이

서방세계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에 대해 갖은 비방을 해대고있다. 일도당도않는 《인권》나발을 불어대며 날조극까지 연출하여 진실인양 류포시켜보려 안달복달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략선전놀음에 쓴웃음을 짓지 않을수 없다. 사실과는 너무도 다른 엉터리 보도, 외곡보도이기때문이다.

나역시 지난 시기에는 북에 대해 잘못 알아왔다. 그러나 여러차례 북을 방문하면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고 점차 북의 현실에 끌려들어가쩨 수 없다.

북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을 많이 가진 흥미있는 나라였다.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큰 감명을 받은것은 김정은령도자의 품에 인민들이 저저마다 안기어드는 모습이였다.

령도자가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품에 안겨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속에 만세를 부르는 광경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가슴뜨거운 화폭이였다. 이것은 연출할수도 없고 인간들의 진실한 마음, 따르는 마음과 정이 없이는 펼쳐질수 없는 광경이였다.

인민들을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곤 하시는 김정은령도자. 그 감동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갈라든 생각은 흡사 어머니의 옷자락에 자식들이 안기는 모습과 너무도 방불하다는것이다.

자식을 낳아 키워본 어머니의 본능적인 감각이라 할가 아이들은 늘 어머니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어머니의 품에 때없이 파고들어 안긴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이나 정이 제일이기때문이다.

인간생활의 리치도 이와 다를바 없다고 본다.

내가 체험한데 의하면 북의 인민들 그 누구를 만나봐도 김정은령도자를 우리 원수님이라 정답게 호칭했고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각근히 존대하여 부르는것이였다. 북



환호하는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에서 김정은령도자는 국가의 령수이시기 전에 인민들의 친어버이로 되고있다.

사람은 정에 살고 정에 죽는다고 했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인민에게 부여주시는 사랑과 정은 혈연으로 맺어진 혈육들사이의 정과 사랑을 훨씬 초월한 가장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다.

내가 북에 체류하고있던 때의 일이다.

당시 북의 라선땅에는 폭우와 큰물로 인하여 혹심한 재해를 당하고 엄청난 인적물적손실을 당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직접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고,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할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그분께서는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 인민들을 더 잘 받들어나가자!

이 한마디 말씀만 놓고도 그분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이 과연 어떤것인지 잘 알수 있다고 본다.

북에서는 령도자가 인민들과 사소한 간격도 두지 않으신다.

늘 인민을 찾아가시고 인민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인민들과 어깨걸고 팔을 끼고 사진을 찍으신다.

인민에 대한 그분의 좌우명도 의미심장하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자!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볼수 없는 인민사랑의 구호라고 하겠다.

언제인가 그분께서는 원아들과 보양생들, 과학자가족들이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시고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몽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일떠선 속성의 과학기술전당과 대동강기슭의 미래과학자거리도 그분께서 인민에게 주시는 최상최대의 선물이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치고 고아들과 부양자없는 로인들은 사회의 《소외계층》, 《시끄러운 존재》이다. 그러나 북에서는 그런 고아들과 로인들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궁전에서 마음껏 행복을 향유하고있었다.

19세기 영국의 이름난 작가였던 찰스 디킨즈는 고아의 운명을 보여주는 《올리버 트위스트의 모험》이라는 장편소설을 썼었다.

방랑속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도적단에 끌려들어가 많은 불행도 겪으며 부상을 당한 불쌍한 고아인 올리버가 어진 사람들을 만나 치료를 받고 출생의 비밀이 해명된 다음에야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다.

그 디킨즈가 오늘도 살아 있다면 부모를 잃고도 천대와 멸시란 말조차 모르고 오히려 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러워할만큼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북의 원아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떤 소설을 썼었을것인가.

환상세계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현실을 바로 김정은령도자께서 북에 현실로 펼쳐주고계시는것이다.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마음껏 먹이게 된것이 기쁘시여 물고기저장고의 소금물배인력에 스스로없이 앉아 사진을 찍으시고 평범한 과학자들의 휴양소위치를 잡아주시려 한 겨울의 맵쌀 날씨에 걸이난 길을 내시여 걸으신분이 바로 김정은령도자이시다.

한마디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북을 사랑의 천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워주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김정은령도자의 연설은 그분께서 얼마나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시고 인민에 대한 애정으로 가슴을 채우신 분이신가를 너무도 잘 알수 있

게 한다. 그분께서는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표현을 무려 97번이나 불러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 당의 힘은 인민의 힘, 당의 위대함은 인민의 위대함, 당의 승리는 인민의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격정을 삼키었다고 한다.

김정은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이 이리할진대 북의 인민들이 그분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북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모자라는것도 많으며 힘겹게 뚫고나가야 할 곤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북의 인민들은 좌절을 모르고 비판도 모른다.

그것은 인민사랑의 화신이시며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령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그분께서 계시여 모든 사람들이 부름없는 만복을 누릴 날이 꼭 온다는 굳은 확신 때문이다.

령도자의 옷자락에 온 나라 인민이 안겨드는 특이한 화폭에서 그분께 자기들의 운명을 다 맡기고 끝까지 따르고 받들어어나갈 북의 군민의 감정과 의지를 나타는 푹푹히 읽을수 있는 글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일체가 된 이런 사회를 무너뜨릴 힘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북은 강성국가건설위업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라는것이 나의 확신이다.

재미동포 리정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공화국이 어떤 사회인가 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이 내세우고있는 지도사상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다 아는것처럼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이 지도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되는것은 그 사상을 들여다보면 잘 알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승발전시키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

일적인 체계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관통하고있는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 다시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

중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되는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되는것은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 그것이 구현되어 펼쳐진 사회현

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사람을 제일 중히 여기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결과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것으로 지향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정치의 중심에 언제나 인민이 자리잡고있다.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철저히 반영

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고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건국의 첫시기 토지개혁법령의 발표와 남녀평등권법령의 채택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의 실시,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

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모든것이 다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인민적법령이였고 시책이다.

이런 정치하에서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로,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하였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인 공화국에서는 물질적부의 창조자도 인민이며 그

향유자 또한 인민대중이다.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룡라인민체육공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래과학자거리의 초고층살림집들을 비롯하여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 이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

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려는 당과 국가의 애민헌신과 멸사복무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서 나라의 근본인 인

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현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을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인간중심의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사회,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드신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공화국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인민중심,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이다.

리철희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며 (1)

## 인민사랑이 펼친 황홀한 거리

평양의 풍치좋은 대동강변을 따라 초고층살림집들과 묶음식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 집어넣은 비닐집, 판자집에 살면서 언제 철거당할지 몰라 불안에 허덕이는 것이 레상사로 되고있다.

그러나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평양의 제일 풍치좋은 명당자리에 인민을 위한 멋들어진 거리가 일떠섰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을 옆에 끼고 길게 펼쳐진 미래과학자거리.

바로 이런 경치좋은 대동강변에 각종 상업, 급양,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은 물론 휴식과 운동도 마음껏 할수 있는 휴식터들과 체육공원들까지 갖춘 새 거리, 새 집에서 평범한 인민들이 사소한 생활상 불편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것이다.

새 집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반아안은 사랑과 배려가 너무도 꿈만 같아 걱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식구 3명에서 궁핍같은 새 집을 반아안은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김정호는 《입사증을 받아안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말 인민을 제일로 내세워주는 우리 나라가 제일이다. 앞으

로 더 큰 후대교육성과로 이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나라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있어 오늘 세상이 부러워할 황홀한 거리가 일떠서고 근로하는 인민이 기쁨속에 새집들이하는 경사가 난것이다.

이 풍치좋은 대동강변에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웅장한 거리를 일떠세울것을 발기하신분도 원수님이시고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시고 비행기에서도 내려다보시며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신분도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지난 9월에도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찾으시여 새로 건설한 창광상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이 매장마다 가득찬것을 보시며 대단히 기뻐하시였으며 인민들이 새로 일떠선 창광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면서 언제든 문을 여는가고 궁금해한다는데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게 운영준비를 더 잘하여 10월 10일을 계기로 개점하려는 사랑의 지지도 내리시였다.

인민증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창전거리가 일떠선 대동강변에 더욱 웅장화려한 미래과학자거리까지 건설되어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는분, 사람들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고생을 겪고있을 때에는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그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도록 심혈을 기울이시며 하늘길, 배길을 달려 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신분,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시기를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조선로동당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공화국에서 인민의 꿈과 리상은 나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11월 3일 완공을 앞둔 류경원을 돌아보시였다.

류경원의 중앙홀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이 홀을 휴식홀로 꾸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 공간에 기단을 형성하고 돌로 조각같은것을 만들어놓은 다음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청량음료 같은것을 봉사해주면 좋을것이라고, 이 홀은 휴식홀인것만큼 여기에 반드시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온도가 90° 되는 건식한증칸에도 들어가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증칸을 둘러막은 유리벽체도 만져보시면서 유리이음쪽에 넓은 띠를 대고 씨리콘을 쏘아넣으면 장식도 되고 열손실도 막을수 있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기도 하시고 장마로 대동강물이 흐려지다보니 육조의 물이 맑지 못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물소독과 펄라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이어 2층에 있는 소금한증칸과 소나무한증칸, 종유석한증칸을 차례로 돌아보신 원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한증을 편안하게 앉아서 할수 있게 의

### 애민현신의 길에서

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증칸 휴식홀의 의자를 보시면서도 의자에 씌운 천에 땀이 배면 냄새가 날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의자에는 일반천을 씌우지 말고 소독수로 닦아낼수 있게 수지물을 입힌 뽕뽕천을 씌워야 한다고 이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대중목욕탕 같은데는 지금처럼 호화로운 형식을 취하는것보다 위생성을 보장하는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쁜 병에 걸릴수 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헤어지기에 앞서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니다.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 류경원을 손색없이 꾸려 류경원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참된 봉사기지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조였다.

본사기자 주일봉  
본사기자

인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 행복의 물결 출렁이며

풍치수려한 대동강변과 잇닿아있는 평양의 문수지구에는 사계절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는 거대한 물놀이장이 있다.

이 물놀이장이 방대한 부지면적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수물놀이장이다.

문수물놀이장이 건설된것은 오래지 않다. 그러나 지금 온 나라가 다 알고 찾아오는 유명한 물놀이장으로 되였다.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각종 야외체육장들로 이루어진 특색있는 문수물놀이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일떠선 대중물놀이봉사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청소년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할것이라고, 문수지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위해 많은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외벽을 대상특성에 맞게 갈매기와 곰방울, 물방울 등의 색타일로 형상하여 외벽치리를 더 특색있게 할데 대한 문제, 햇빛을 막을수 있는 차일풍을 설치하여 인민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나와서 그밑에서 휴식도 하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보아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신 무려 113건이나 되는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에도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숨배여있다.

문수물놀이장은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러진 야외

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등 인민들이 사계절 물놀이를 하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들이 그쫘히 갖추어져있다.

야외물놀이장에만도 각이한 물미끄럼대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모으고있다.

4m로부터 최고 18m까지에 달하는 물미끄럼대들이 있는가 하면 버섯조합형물미끄럼대, 단김식물미끄럼대, 물결과 물미끄럼대, 도해변강물미끄럼대, 사발물미끄럼대, 금강하물미끄럼대 등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강과 바다가 잇달리는듯 한 감이 드는 물미끄럼대, 쾌속정의 선창에서 날 바다를 헤쳐가는 쾌감을 맛볼수 있는 물미끄럼대, 끝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듯 한 감을 주는 물미끄럼대 등 각이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물미끄럼대들도 있다.

크기가 서로 다른 10여개에

달하는 수조들도 아주 특색이 있다. 서해의 바다물이 출렁이는 바다물수조가 있는가 하면 맑은 물이 굽이쳐흐르는 기다란 수조도 있고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아동물공원도 동심세계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꾸려져있다. 인공폭포, 인공바위산, 모래터배구장과 조약대 등 모든것이 물놀이장의 구색에 맞으면서도 사람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꾸려져있다.

삼복의 무더위때 찾아와 시원한 물에 몸을 잠그는 기분도 상쾌하지만 눈이 평평 쏟아지는 한겨울에도 실내물놀이장의 푸른 물결에서 물놀이를 하는것도 즐거움을 한껏 자아낸다.

조선서해에서 바다물수송관을 통하여 끌어온 바다물수조

에서 파도를 맞받아 헤엄치는 사람들,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좋아라 웃고 떠드는 사람들, 야외체육장에서 떠들썩한 응원속에 모래터배구를 하는 사람들...

실내물놀이장도 사람들로 늘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어디가나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조약대에서 기교를 부리며 물에 뛰어드는 남녀청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영경기에 열을 올리는 학생소년들, 물미끄럼대에서 지쳐내리며 좋아라 탄성을 터치는 사람들로 하여 물놀이는 떠들썩하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문수물놀이장을 찾아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군 한다.

그곳에서 휴식을 즐긴 한 해외동포는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을 위한 령도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를 잘 보여준다.》고 감동을 토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와 물놀이장이 사람천지를 이루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대동강변에 울려 퍼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고 온갖 국가적인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는 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 궁궐같은 새 집에서 만복을 누리게 된 교육자, 과학자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펼쳐져 더욱 약동하는 시대에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가 운동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인것이다. 황홀한 새 거리로 이사집을 신고 들어서는 자동차행렬들, 좋아

어쩔줄 모르는 아이들, 꿈같은 행복에 울고웃는 사람들... 진정 그 모습은 이 나라의 교육자, 과학자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였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만복의 주인공들을 찾아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저 멀리 주체사상탑과 5월1일경기장, 류경호텔, 룡라인민유원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안겨왔다.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귀전에 박명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저의 심정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혼자 독차지한것만 같아 막 벅차오릅니다. 서른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과학기술로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밀거름이 되리라 생각했던 우리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세워주시었습니다. 꼭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과학자, 교원들에게 하루빨리 회한한 새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흥인지 날리는 건설장도 걸으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시를 뜨겁게 어려왔다.

어제는 과학자, 교육자들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와 같은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더니 오늘은 또 다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 통채로 안겨주시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속에 행복의 상상봉에 올라선 이 나라의 과학자, 교육자들이 아닌가.

인민의 꿈이 꿈아닌 현실로 꽃피어났을 부풀어오르는 가슴속에 새겨안으며 우리는 또다른 행복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길을 이어갔다.

는 또 어떤 기쁨이 있을가 하는 호기심을 안고 들어서니 사람들속에 둘러싸여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있는 한 녀성의 모습이 안겨왔다. 알고보니 김순희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강좌장이었다.

기자들임을 알아본 김순희강좌장은 우리에게 《잘 오셨습니다. 평범한 우리 녀성교육자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이 행복을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해주십시오.》라고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번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수십여명의 녀성교육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살게 되었다면서 살림집리용증서를 펼쳐보이는것이였다.

거기에 찍여진 《현 리용자 이름 김순희》라는 글줄, 길지 않은 그 글줄은 온 세상이 부러워할 궁궐같은 살림집의 주인이 김순희강좌장이라고 소리높이 웨치는것만 같았다.

《살림집은 세대주들에게 배정하는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한해전 행복의 돛배마냥 나란히 솟아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리용증서를 받아안은 강좌교원들을 보며 몹시 부러워했었는데... 글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녀성교육자들의 마음속소망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주시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며 공감을 표시하는 우리에게 김순희강좌장의 남편인 리시훈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젠가 과학기술교류차로 어느 한 나라에 갔던 그는 그 나라의 대학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많은 교육자들이 퇴직할 때까지도 온전한 제 집 한칸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급주택도 아니고 수수한 일반주택을 마련하자고 해도 값이 너무도 엄청나게 들어서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에 대비할 수도 없이 크고 덩실한 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그것도 평범한 녀성교육자가 받아안았으니 이 사실을 그 나라의 교수, 박사가 안다면 심정이 과연 어떠하랴.

《우리 녀성교육자, 녀성과 학자들을 최첨단과학기술로 강성국가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메고나가는 애국자로 값높이 내세워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희한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정책이 녀성교육자, 녀성과학자

들이 살게 될 살림집에 이르기 까지 그 얼마나 속속들이 미치고있는것인가.

이런 생각에 잠겨 그가 받아안은 살림집리용증서를 보노라

니 만사람의 축복속에 사회의 꽃, 시대의 꽃으로 떠받들리는 이 나라의 녀성교육자, 녀성과학자들이 행복의 군상으로 우러이 안겨왔다.

##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바쳐



우리는 미래과학자거리의 한 가운데 물결모양으로 특색있게 일떠선 아파트의 3층 2호에도 들렀다.

아들과 함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다는 리성철교원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오늘 아침 날도 채 밝기도 전에 문두드리는 소리에 나가 보니 아파트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사연인즉 미래과학자거리의 새 살림집에 이사가는데 일손을 하나라도 돕고 싶어 왔다는것이였다.

이들만이 아니었다. 큰 공을 세운것도 아닌 나를 영웅처럼 떠받들며 동사무소일꾼들이 꽃다발을 안고 찾아오는가 하면 이사집을 신고 떠날 때에는 온 동네가 떨쳐나 바래주며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아마 돈이 많아 이사를 간다면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떨쳐나 바래줄수 있었겠는가.

더욱 감동적인것은 새 집에 이사와서 조선인민군 장령에게서 집열쇠를 받을 때였다. 그 순간 왜서인지 가슴이 뭉클 찻어들었다.

인민군인들이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해 최상급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건설하여 열쇠를 넘겨주는것은 교육자,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나라에서만이 볼수 있는 사회주의풍경이 아니겠는가.

얼마전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본 남조선노동자추구대포단 성원들이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들에서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살게 된다니 믿을수 없다고, 남조선에서는 돈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고급살림집에서 살수 있다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당당히 말하고싶다. 궁궐같은 살림집에서 바로 평범한 우리 교육자가정이 살고있다고.

하기에 새집들이를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우리 가족은 사회주의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나는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쟁쟁한 인재들을 키우는 후대교육사업에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다 바쳐가겠다...

이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새집들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난본 교육자, 과학자들 누구나의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고마움의 목소리, 보답의 맹세는 하나같았다.

\*  
\*  
취재를 마치고 나서니 어느덧 저녁어스름이 깃들었다. 불밝은 야경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웅장화려한 모습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온 세상에 파시하며 솟아오른 저 행복의 보금자리들, 밝은 불빛이 쏟아져나오는 저 창가마다에서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압도해 나갈 맹세가 울려나오리니 행복의 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끝없이 부강번영할 공화국의 래일이 보이는듯싶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 고영숙  
" 김철호

## 《행복의 상상봉에 올랐습니다》



누구부터 만날까?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이 짝 들어찬 미래과학자거리 한복판에서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는데 전자자리길모양으로 타래쳐오른 특색있는 초고층건물이 시야에 비껴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미래과학자거리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아오른 초고층살림집의 맨 윗층에 누가 살가 하는 궁금한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리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한 바람이 그칠줄 모른다는 백수십m의 높이에 있는 53층에 오르면 우리는 2호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젊은 사람이 우리를 반겨 맞아 주었다.

새집들이를 취재하러 온 기자라고 소개하자 그는 자기가 이 집에서 살게 될 평양정보기술국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박명근이라며 우리를 방안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새 살림집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산뜻한 색타일들로 곱게 장식된 부엌에는 가정주부들이 좋아하는 가시대며 멋있는 찬장, 배풍기 등이 설치되어있었고 공동살림방, 서재, 자식방, 부부방 등 방만 해도 다섯칸이나 되는 집은 정말 희한하고 멋있었다.

침대며 소파, TV탁, 책장, 의자를 비롯하여 10여종이나 되는 고급가구들과 비품들은 방안의 품위를 한껏 돋구어주

었다. 겨울철은도보장을 위해 지열난방체계까지 갖추어진 살림집은 그야말로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돌아볼수록 너무도 회한하여 경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박명근은 《베란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53층에서 바라보이는 웅장화려한 평양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랍니다.》라며 그리로 이끌었다.

베란다에 나가니 대동강호안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초고층살림집들과 묶음식살림집들이며 영화관과 상점들을 비롯한 봉사망들, 꽃밭을 이룬 휴식터들과 체육공원들로 이루어진 미래과학자거리는 물론이고

## 녀성교육자가 받은 살림집리용증서



《강좌장선생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

새집들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찾은 곳은 미래동 27인민반 3층 1호였다. 이 가정에



시

# 삼가 꽃바구니 드리옵니다

## 평양의 저녁

— 평양친선병원 정원에서 —

하늘에선 못별들이 반짝이는데  
병원앞 고층살림집 불밝은 창문들에선  
들려오누나 사회주의 내 조국의 노래이런가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

들려와라  
거리를 달리는 버스며 승용차들의 경적소리  
퇴근길의 활기찬 사람들의 떠들썩  
조선로동당의 70년 위훈을 구가하는  
대동강반 1만명의 대공연노래소리...

그 노래속에 울려온다  
평양애육원과 육아원, 평양양로원의 창문  
을 흔드는  
원아들과 보양생들의 웃음소리  
릉라팝동어판의 환호성과 승마구락부의 말  
발굽소리  
출렁이는 대동강 《무지개》호에선 날아올  
라라  
행복넘친 즐거운 인민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선경으로 일떠선

라선지구의 새집들이소식  
하늘에선 우리가 제작한 비행기가 날고  
지하에선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달리는 소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타빈이 돌아가고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이 일떠서고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  
는 소리

오, 들려온다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으로 굳게 뭉쳐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10년세월 1년으로 주름잡으며 힘차게 솟구  
치는  
내 조국의 장엄한 퍼덕임소리  
세계를 진감하는 최후승리의 만세소리!

아, 평양의 이 저녁  
나는 듣는다  
무궁번영 김정은시대를 노래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위대한 송가들!

## 간호원의 고운 눈길에서

호리호리한 몸매에 얼굴은 환하기도 하지  
그속에 호수같은 간호원의 눈  
파멸에 쓰인듯 주사침이 아를 때  
오히려 제가 아픈듯 찡그려지는 고운 눈

간호원의 아버지  
이름난 어느 병원의 책임기사  
어머니는  
명망높은 대학의 교수이러지

허나 17살 나이에  
스스로 군복을 입었다는 처녀  
수년간 최전연초소에서

원수와 총부리 맞대고 조국을 보위한  
처녀

환자들을 대할 땐 간호원의 그 눈  
정성과 즐거움에 빛나는 아름다운 구슬  
허나 총을 들고 침략자들을 겨누다면  
원수들에게 다시없을 멸망의 함성!

나는 보았다  
간호원의 아름다운 그 눈길에서  
인민들에게 한없는 정에 넘치고  
원수들에게 더없는 중요함에 불라는  
청년강국의 활화산같은 사랑과 중요물!

## 투약시간에

내 몸에 흘러든것은  
약이 아닙니다  
조국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보답의 불덩어리

## 나는 창문을 열어제끼다

— 늦가을 비 창문을 두드리는 입원실에서 —

늦가을 찬바람 거세차지누나  
락엽은 여기저기 날려가누나  
하늘엔 검은구름 뒤덮이고  
차거운 가을비 그칠줄 모르는구나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의 마음  
저도 모르게 집생각 가득차올라  
걸 잡을수 없구나 쓸쓸하고 불안한  
마음  
호전되던 병세마저 되돌아설듯...

허나 아니할 생각  
병실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웃음많은 담당간호원 들어섰거니  
받쳐든 아침식사그릇에선  
더운 김이 무럭무럭...

점적액은 더워있고

## 안해와 나는 조국이야기

— 중국에 있는 안해와 전화로 만나다 —

깜짝 놀랐다니  
입원치료 받는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전화기에 울려오는  
당황하고 걱정스런 안해의 목소리  
병원조건, 의료수준 펜찮은가  
식사는 구미에 맞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살뜰하고 정깊은 안해의 목소리...  
평양친선병원은

이불밑 더운 물병 온몸을 덥혀줄 때에  
어디로 사라졌나  
창밖의 비바람소리...  
오, 이때라 이 순간  
가슴뭉클 다가오누나  
어머니의 얼굴...  
안해의 얼굴...

매아닌 늦가을 비 나무잎을 떨구고  
비바람 세차게 몰아쳐와도  
따뜻이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사랑...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나는 힘껏 창문을 열어젖힌다  
창밖엔 비뿌리고 바람세차도  
내 마음속엔  
무지개 아름답고 해빛이 찬란하다!

조국에서도 이름높은 병원  
우리 해외동포들을 위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세워주신 병원  
현대적인 설비에 의술높은 선생님들  
문턱이 낮도록 병실문을 넘나드는  
담당의사와 간호원의 정성어린 치료에  
건강은 어느새 회복단계...

조국에선 무상치료제란 말은 들었어도

그것이 정말인지  
치료비와 식사비를 걱정하는  
안해의 후시나한 목소리...

오, 이때라  
내 가슴에 넘쳐나는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찌릿한 자부심이어!  
침략의 피수 미제와 맞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더란다

정원의 미남자 수삼나무 아직 늦잠자는데  
언제 깨었나 대추나무우에선 다람쥐 오르락  
내리락...  
건강을 회복한 나를 축하하는 음악이런가  
새벽고요 흔들며 멀리서 들려오네  
첫 버스의 은은한 경적소리...

어린시절 내 이마 짙어주며  
얼른 잠간 나을거라 다독여주시던  
흰 머리수건의 어머니모습이런가  
새벽안개속의 평양친선병원이며  
불밝은 입원실창문가엔  
안개타고 내려온 하늘나라 신선들인가  
날 밝도록 정성을 명약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하얀 위생복의 의사와 간호원들...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얼마나 큰줄을  
사회주의조국이 얼마나 좋은줄을  
말이 아니라 건강해진 몸으로 알았습니다

## 작별의 순간이여!

— 평양친선병원을 퇴원하면서 —

끝내는 오고야말았구나  
그토록 걱정하고 근심했건만  
그토록 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랐건만  
무정토다 정녕코 다가온 퇴원의 날이여  
정든 병원 떠나야 할 작별의 순간이여

환자로 다시는 병실에 들어놓지 않으려는듯  
차갑게 빛 뿌리는 침대며 댕장고며 물고뿌...  
왜라서 이토록 눈물겹게 가고싶을가  
매일 《공포》에 떨며 들어서던 이비인후과  
치료실...

정답게 손져어주누나  
아침저녁 산보길에 가까워졌던  
담당의사 돌보는 밤나무며  
간호원처녀 보살피는 은행나무  
병원들안의 대추나무며 백살구, 단풍나무들  
아지뻗쳐 바람결에 서로서로 흔드는 잎새...

알았던가 몰랐던가 병원의 보건의료들  
복도에서 스칠 땐 그토록 점잖더니

## 삼가 꽃바구니 드리옵니다

완쾌하여 병원문을 나서는 이 아침  
평양친선병원중앙홀에 높이 모신  
영원한 태양 수령님들의 립상화 우러러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해외공민이었습니다  
천만년 세월가도 못다 갚을 그 믿음속에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 사랑속에  
오늘은 재중총련의 일군으로 자랐습니다

수십년 세월을 함께 살아온  
다정한 안해도 자식도 별치 않게 여겨온 병  
10년세월 그저그렇거니 왔으며 길러온 병  
보살피며 뜨겁게 보살피며 건강을 되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사랑 ...  
먼곳의 자식들을 더 위하는 친어버이심정으로  
불러주십니다  
조국의 큰 명절 경사의 날마다  
세워주십니다  
온 겨레 온 세계가 지켜보는 영광의 주석단에  
안겨주십니다

최수봉(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허나 변함없이 인민에게 베풀어진  
무상치료제의 혜택  
그속에 해외공민 우리들도 있었거니

정말 좋은 세상이다  
국제전화라는것도 있고  
밤깊도록 그칠줄 모르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  
오, 무변광대 우주공간 넘나든  
우리 부부의 어머니조국이야기...

## 새벽안개속의 친선병원 소묘

입원실창가를 목베고 기웃한 감나무어  
그 어디에 또 있을손가 무상치료제의 지상  
락원

불빛에 반짝이는 아지마다 주렁진 빨간 감알은  
나의 건강 축하하는 축포의 불꽃이런가

병원홀에 정히 모신  
두분의 태양의 미소 눈부신 평양친선병원이며  
내 높뛰는 심장 들먹이며  
온 세계가 찾아오는 너의 뜰안에 서있노라

크나큰 걱정에 내 할 말을 잃고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내 조국—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노래하는  
지구를 놀리던 하나의 커다란 감란표로  
내 서있노라 온 세계를 향하여!

## 말이 아니라 몸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조국 혈통은 무리 얼마나 나쁜줄을  
이런 조국 어떻게 지켜야 하는줄을  
말이 아니라 튼튼해진 몸으로 알았습니다

## 작별의 순간이여!

— 평양친선병원을 퇴원하면서 —

너도 나도 달려와 열싸안고 손잡고 앓지 말  
라고  
나누는 작별의 인사 눈물겹도록 뜨거운데  
한 구석의 눈물만 글썽한  
담당의사선생과 담당간호원처녀...

울컥 치미는 감정 누르고 억지웃음 지으며  
잘 있으라 목메어 이 한마디 외울 때  
끝내는 눈굽에 번쩍이는 뜨거운 이슬  
마주잡는 손길은 왜 이다지도 서투른가

잘 있으라 잘 가시라  
그동안의 모든 사연 이 한마디에 담아  
우리 서로 목메어 다시 외울 때  
우리 서로 뜨겁게 열싸안을 때  
그대들은 조국땅에서  
나는 이국땅에서  
고마운 우리 조국—원수님을 잘 받들자  
쿵! 쿵! 지구를 울리는 심장의 박동이어  
아, 맹세로 뜨거운 작별의 순간이여!

자애의 은정어린 뜻깊은 생일상도...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 너무도 고마워  
눈부신 우리 해님—원수님 우러러  
목메어 목메어 고마움에 눈물짓는 저희들입니다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  
원수님 가리키시는 무궁번영의 그 손길따라  
역세계 역세계 통일강성국가건설에 다 바쳐  
갈 이 마음...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옵니다  
우리 해외공민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다할 한마음을 담아  
불라는 맹세 철석의 신념으로 삼가 엮은  
꽃바구니  
우러러 우러러 위대하신 수령님들께 드리옵  
니다

